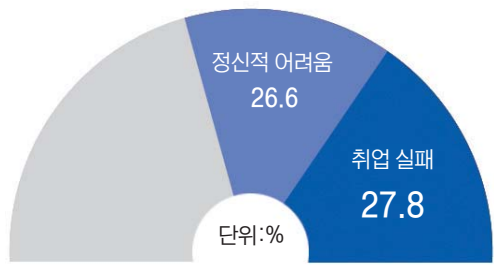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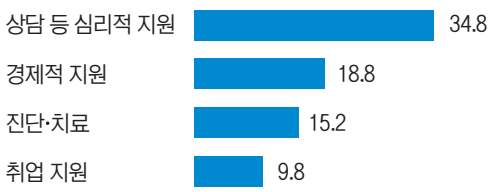


“은둔형 외톨이’ 된 이유는…취업 실패·우울증 때문”

■은둔 생활 주된 계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복수 응답: %)



광주시, 전국 첫 실태 조사

‘은둔형 외톨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주된 이유로 취업 실패를 꼽았고,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스마트폰 등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답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실태 조사 응답자 1095명 중 당사자 237명, 가족 112명 등 유효 표본 349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은둔 생활의 주된 계기는 ‘취업 실패’라는 답변이 27.8%,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은 26.6%였다. 은둔생활 기간은 6개월~1년이 31.2%, 1년~3년은 24.9%였다.

평상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중복 답변)은 스마트폰 사용(53.2%), PC·인터넷 게임

10명 중 6명 남성...20~30대 비율 71%·대졸이상 41.5%
대부분 “희망 없다”...“스마트폰 없으면 진정 안돼” 78.5%
가장 필요한 지원은 상담 34.8%...경제적 지원도 18.8%

(50.2%), 잡자기(41.8%) 등이었다.

평소 속마음을 털어놓을 대화 상대가 전혀 없다는 응답이 60.8%를 차지했고, 42.9%는 가족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5.8%나 됐으며, PC나 휴대전화 없으면 잠시도 진정할 수가 없다는 응답은 78.5%,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서투르다는 응답은 93.2%였다.

가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신(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가족들이 가장 많이 노력한 부분은 취업·직업 훈련 권유가 44.1%, ‘대화를 하며 믿고 격려해 줬다’는 36%였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은 상담 등 심리적 지원(34.8%), 경제적 지원(18.8%), 진단·치료(15.2%), 취업 지원(9.8%)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은둔형 외톨이 349명의 인구 분포를 보면 남성 226명(64.8%)·여성 123명(35.2%)이었으며, 20대(44.4%)와 30대

(26.6%), 대졸 이상(41.5%), 3~4명 가족과 거주(56.2%) 비율이 높았다.

은둔형 외톨이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뜻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부터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2019년 10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광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근거해 조사를 시행했다.

광주시는 27일 오전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태조사 공유회를 열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빛1호기 정비 위해 오늘 발전 중단

6기 중 4개 멈춰

한빛 1호기(가압경수로형·950MW급)가 정비를 위해 멈춰섰다.

이로써 한빛원전은 6기 중 절반이 넘는 4기(한빛 1·4·5·6호기)의 발전이 중지된다.

26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빛 1호기는 27일 제25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을 중단한다.

계획예방정비는 18개월 주기로 실시되는 정비로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한빛 원전측은 이번 1호기 계획예방정비를 통해 원전연료 교체와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점검,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 검사, 증기발생기 열관 검사 등 설비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1호기는 정비가 끝나면 4월말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능 승인을 받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며, 6호기는 5월께 정비가 끝날 것으로 계획돼 있어 4월까지 4기의 발전이 계속 멈춰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빛원전은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발전소를 출입하는 모든 외부 인력에 대해 사전 감염검사 시행, 도시락 반입 허용, KF94 마스크 착용 및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작업자 공용시설 및 컨테이너 등 취락시설에 대한 특별방역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 들어있니? 26일 오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한복을 입은 아이들이 색깔이 세배를 배우면서 받은 북주머니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어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스마트폰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광주 서구, 서비스 제공

광주시 서구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어르신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대상자는 건강관리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 600명이며, 구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약제로 운영하며 사전검사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현황 등을 파악해 맞춤 건강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과 기타 문의사항은 상무금 호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보건팀(350-4777/4779)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코로나에...” 광주 특성화고 정원 미달

11곳 중 3곳...학령인구 감소·취업난·홍보 부진 탓

광주지역 일부 특성화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는 정원의 절반만 충원한 데 그쳤고, 공업고 일부 학교는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체 특성화고 11개교에 대해 지난 25일까지 정시모집과 1·2차 추가 모집 결과, 총 정원 2300명 중 2160명을 채웠다. 11개교 중 3개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A고는 정원 132명 중 절반도 못 되는 56명만 충원한 상태이다.

일부 공업고의 기계과, 토목과, 건설과 등도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업고의 전통 상과 계열과도 학생들이 상

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업고의 전기과·전자과, 상업고의 피부미용과·제과제빵과·요리과 등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처럼 특성화고가 전반적으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데는 학령인구 감소와 감소세에 있는 취업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체험활동을 못 한 부분이 특성화고 정원 미달의 원인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추가 모집을 하면 한 두 개 학교를 제외하고 정원을 다 채울 것 같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에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공자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